

고달픈 풀어낸 가락에 세월을 묻고

<잠녀를 만나다> 소리를 따라-대정 김부선 할머니

등록 : 2010년 02월 02일 (화) 20:05:05
최종수정 : 2010년 02월 02일 (화) 20:05:05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고달픈 풀어낸 가락에 세월을 묻고

가파도서 한산도 비진·홍도로 바깥물질 '노젓는 소리'배워

"힘들어도 내 저어 먼 바다까지 나가 물질"...억척스런 삶 감내



▲ 김부선 할머니

"이어사나 이어도사나/요내 저성 어딜 가리(이 노 저어 어디로 가리)...요 물 아래 은과 금은 깔렸건
만/높은 낭(나무)에 열매로다...젊은 기심 놓았다가/집을 사라 발을 사라/놀릴 대로 놀려보자/이어사
나 이어도나"

매달은 음색이 퍼진다. “그 때는 노만 잡으면 저절로 노래가 나왔는데…” 멧쩍은 듯 가벼운 미소를 머금던 김부선 할머니(73·대정읍)의 ‘노 젓는 소리’가 귀에 와 감긴다. ‘물질을 하면서 저절로 배운 소리’다. 이렇게 노젓소리에 얽어 토해내지나 않으면 힘든 상황을 견뎌내기 어려웠으리라. 알기에 더 구슬픈 가락이 가슴을 후빈다.

소리 없이는 힘들었던 작업



▲ 1969년 배를 타고 물질을 나가는 잠녀들의 모습. 먼 바다까지 노를 저어가는 동안 노젓는 소리는 노동요로 제몫을 톡톡히 했다.

김 할머니를 만난 것은 대정읍이었지만 정작 할머니가 물질을 배운 곳은 가파도다. 김 할머니도 다른 잠녀들과 마찬가지로 숙명처럼 물질을 배웠다. 잘 한다 못 한다 기준 없이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이었다. 김 할머니의 노 젓는 소리는 조금 ‘빠른’편이다.

“여기서는 한림·세화 방면이 동쪽”이라고 운을 뗀 김 할머니는 “동쪽 소리가 조금 빠른편이고 이쪽을 넘어서는 느리다”고 설명했다. 고개를 끄덕이기는 했지만 사실 소리에 익숙한 사람들이나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다.

김 할머니가 노 젓는 소리를 배운 것은 열여덟, 꽃다운 나이에 한산도 비진으로 바깥 물질을 가면서였다. 가파도 잠녀 10명이 배 3척에 나눠 타고 한산도 비진으로 돈을 벌러 갔다.

김 할머니는 “제주서는 푼돈을 벌었지만 밖에 나가면 목돈을 만질 수 있다고 해서 어른들을 좇아 처녀들도 많이 바깥 물질을 했다”며 “뚝도 없는 풍선에 몸을 실고 노를 저어 일하러 다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산도 비진에서는 정월에 해상 작업을 하고 이후 미역과 천초를 조물었다. 미역은 먼저 미역바다를 산 전주 밑에서 작업을 했다. 7월 성계 작업을 할 때까지 쉴 참이 없었다. 타항살이의 외로움에 힘든 작업을 견디다 못해 다른 잠녀들이 하나둘 집을 쌀 때도 김 할머니는 끝까지 남았다.

19살에는 사계 등 다른 지역 잠녀들과 다시 바깥물질에 나섰다.

“사공까지 4명이 두 번씩 교대를 하고 노를 저어야 겨우 물질을 할 수 있는 바닷에 닿았다”며 “이어사나 소리를 주고받으니까 버텼지 만 정신으로는 작업 자체가 어려웠을 정도”라고 말했다.

직접 잠녀들을 모집해 일본 스시마 물질을 나르고 잠수기선에서 일을 했던 아버지나 5년전 작고하신 어머니(고 부원구·86)는 김 할머니를 지탱했던 힘이였다.

스시마에서 직접 미역 바다를 사서 모집해간 잠녀들에게 작업을 하게 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며, 부산 영도에 터를 잡은 후에도 계속 물질을 했던 어머니의 모습에서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기 보다는 살기 위해서는 억척스러워야했던 현실을 배웠다.

“셋째를 낳을 때까지 내(노)를 저었지”

노를 젓는 일은 남자들도 험지 않은 일이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마다할 수 없었다.

20살에 홍도 바깥물질을 갔을 때도, 다시 고향 가파도에 돌아와서도 김 할머니는 노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홍도에서는 천초만 작업했다. 음력 5월말 1반초 작업을 하고, 8월 명절 전까지 3반초 작업을 끝내서야 돌아왔다. 홍도 바깥 물질을 끝으로 결혼을 하고 가파도에 자리를 잡았다. 가파도에서 역시 뱃물질을 했다.

섬 물질이라는 게 물살도 세고 바람도 제멋대로여서 곱물질을 할 때도 적잖았지만 대부분 뱃물질을 선호했다. 김 할머니는 “멀리 나가면 물건이 많은 숨은여가 많다”며 “노를 저어 일부러 먼 바다까지 나가서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가 23살 되던 무렵, 1960년대 들어서며 잠녀들의 작업용 배가 발동선으로 교체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25살까지 노 젓는 배가 있었다고 기억했다.

“그때야 다 그랬지, 젖먹이 아기를 안고도 물질을 하러 나가곤 했다”며 “씻제를 나올 때까지 노를 저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다.

“이어서나 이어도사나/지쳤구나 버쳤구나/요만한나 지쳤구나…이 내 몸에서 내리는 물은/일척간장 다 섞은 물이며/…어서 가서 우리 아기 젖을 주며/정든 남편 밥을 주저…”

그냥 어찌 소리를 하나며 한사코 손을 내젓던 김 할머니의 입에서 노 젓는 소리가 새어나온다. 세월이 묻어난다. 분명 물에서 듣는 소리인데 눈 앞에 노를 저으며 ‘허’ ‘해’ 힘든 숨을 토해내는 잠녀들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거친 숨소리에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코 끝이 찡하다.

이런 마음을 애써 모르는 채하며 김 할머니는 거실 한 켠 잘 보관해둔 오래된 재봉틀과 직접 잠수복을 만들어 입었던 일로 말을 돌렸다.



▲ 미역 판 돈으로 마련한 울해로 49살된 재봉틀.

둘째 아들을 임신했을 때 미역을 해서 번 돈으로 산 것이라는 재봉틀은 아들과 같이 울해 49살이 됐다. “그 때 잠녀가 200명이나 됐지만 1등 미역을 많이 조물어서 돈이 꽤 됐어. 어촌계에 재봉틀 3대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내 차지가 됐지. 시집을 때 장만하지 못해 맘이 쓰였거든”

아직도 현역인 재봉틀처럼 김 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바다에 가 있는 듯 했다. 50년도 더 전 읊조리던 노래 가락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잠녀들의 바다는 그렇게 가슴에 잠긴다.



▲ 집안 한편 꼬마 테왁이 시선을 끈다.